

공짜 야구 모바일 중계 사라진다

티빙 프로야구 중계에 팬들 '갑론을박'

티빙, 유료 중계 확정... 월 구독료 5500원 이상 내야
일부 야구 팬들 "야구까지 돈내고? 안본다" 비판
"해외와 비교하면 저렴... 콘텐츠 다각화가 관건" 의견도

티빙과 한국야구위원회(KBO) 간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이 확정되자 야구팬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료 중계로 접근성이 떨어져 일부 야구 팬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프로스포츠를 공짜로 보는 생각을 이제 접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스포츠를 중계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라며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티빙은 지난 4일 2024~2026년 KBO 리그 유무선 중계 권한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티빙은 다음 달까지 KBO 리그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후에 KBO 리그를 시청하려면 월 5500원(광고 요금제) 이상 유료 멤버십을 구독해야 한다.

LG유플러스 스포츠, 아프리카TV 등에서 무료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티빙 모회사 CJ ENM이 중계권 재판매에 나서지 않는다면 인터넷에서의 프로야구 무료 시청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프로야구 정규 시즌부터 포스트시즌까지 약 8개월(3월 말~11월 초)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구팬은 KBO 리그를 보기 위해 한해에만 구독료 4만4,000원(월 5,500원 8개월치)을 티빙에 내야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돈을 내면서까지 야구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신규 팬 유입이 줄어들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유료 중계는 예정된 수준... 티빙 야구, 다른 나라보다 저렴해"
반대로 일부 네티즌은 모바일 스포츠 중계 유료화가 당연한 수준이었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야구 중계 유료화가 리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프로야구단은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구단 모기업 지원 역량에 따라 구단 성적도



SK텔레콤은 최근 에이닷 앱 공지사항에 실시간 중계, 응원팀 설정 등 프로야구 관련 일부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 AI 서비스 에이닷을 통해 프로야구 경기를 생중계하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제공>

영향 받는 만큼 중계권료 수입 확대 등이 이뤄진다면 구단도 모기업 지원 감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야구단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야구팬의 생각이다.

또 무료로 즐기던 게 유료가 되니 불만소리 나오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스포츠 중계를 제공하는 해외 OTT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야구 외에 다른 콘텐츠(영화, 드라마 등)도 볼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월 5500원이면

충분히 지불할 만하다. 미국, 일본 등이 야구 중계에 월 수만원을 걷는 걸 고려하면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일본 프로야구(NPB) 리그를 중계하는 OTT 다즈(DAZN)의 월 구독료는 2300엔(약 2만원, '다즈 베이스볼' 요금제 기준)이다.

미국 메이저리그(MLB)를 중계하는 OTT MLB.TV의 월 구독료는 29.99달러(약 4만원)다. 매주 금요일 MLB 2경기를 라이브로 볼 수 있는 애플 티비 플러스도 월 구독료 9.99달러

(약 1만3000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유료화에 찬성하는 팬들도 티빙이 야구팬들의 유료 중계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료로 보던 게 유료 서비스가 됐으니 당연히 기존보다 고품질 중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티빙은 △40초 미만 스포츠 제작 허용 △KBO 스페셜판 △빠른 접근성을 위한 홈 구단 설정, 푸시 알림 기능 △KBO 리그 한정해 광고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화면 속 화면(PIP) 기능 지원 △KBO 데이터 기반 경기 중계 화면 내 정보 제공(대진표, 이닝별 득점 현황, 주요 기록·전력, 라인업 등) △디지털 응원 기능(단체 채팅 등) △타임머신 기능(홈런, 도루 등 놓친 장면 다시보기) △응원단장 '입 중계' △타임슈퍼 매치(프리뷰쇼, 경기 종료 후 라이브 쇼, 감독·선수 심층 인터뷰 등) △KBO 관련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계획 등을 약속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OTT 중계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팬들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팬 부담을 낮추기 위한 티빙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청자들이 야구 말고도 프리미엄 콘텐츠를 지속 제공해 구독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지역사회 발전
스포츠 복지 향상
전북자생센터-전북체육회
자원봉사문화 확산 '맞손'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정호)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와 5일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협업에 들어갔다.

앞으로 두 기관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체육회는 임·직원들과 체육인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인적·물적 인프라와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체육회와 함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수요처 연계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강선 회장은 "도민들의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협력력이 중요하며, 양 기관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오직 도민을 위한 스포츠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정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도민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전북특별자치도 구현에 힘을 기울이며, 자원봉사와 체육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강화에 양 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여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가 9일부터 시작한다. 객관적 전력과 선수 구성에서 밀리는 '언더독' (약체) 팀들의 반란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규리그 1위 청주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아산 우리은행, 용인 삼성생명, 부천 하나원큐가 우리은행 우리WON 2023~2024 여자프로농구 '봄 농구' 플레이오프 승부를 펼친다.

1위를 차지한 KB국민은행은 4위 하나원큐와 오는 9일부터 청주체육관에서, 2위 우리은행은 3위 삼성생명과 10일부터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격돌한다.

지난 시즌까지 플레이오프는 3전2선 승제로 열렸으나 이번부터 5전3선승제로 확대됐다.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두 팀은 24일부터 시작하는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에서 우승을 다툰다.

약체팀들 반란 '관심사' ... 여자농구, 9일 플레이오프 돌입

창단 첫 PO 진출 하나원큐, 1위 KB국민은행과 대결
젊은 삼성생명, 디펜딩챔피언 우리은행 상대로 도전

챔피언결정전 상금은 6,000만원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원큐의 대결은 무계가 한쪽으로 확 쏠린다. 정규리그 6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KB국민은행의 우세가 점쳐진다. KB국민은행은 27승3패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1~5라운드 최우수선수(MVP)상을 독식한 국가대표 센터 박지수의 존재감이 절대적이다. 정규리그 29경기에서 평균 20.3점 15.2리바운드 5.4어시스트 1.8블록슛으로 공수를 책임졌다.

특정, 리바운드, 블록슛, 공헌도 부문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유력한 정규리그 MVP 후보다.

여기에 강이슬과 가드 허예은, 염운아, 김민정 등 탄탄한 선수층을 자랑한다. 슈터 강이슬은 3점슛 부문 1위, 허예은은 어시스트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선수들 대부분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하다.

이에 반해 최근 두 시즌 연속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던 하나원큐(10승20패)는 힘겨운 4강 싸움 끝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5위 인천 신한은행(8승22패)을 2경기 차로 겨우 따돌렸다.

창단 첫 플레이옔� 무대 진출인 셀이다.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던 2015~2016시즌 때는 웰시 리가 혼혈이라고 속였다가 뒤늦게 들통이 나 기록이 삭제됐다. 2019~2020시즌에는 3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리그가 조기에 끝났다.

신지현, 양인영, 배태랑 김정은이 주축으로 뛰고 있지만 KB국민은행의 막강한 공격력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KB국민은행은 경기

당 72.7점으로 전체 1위다. 하나원큐는 63.2점으로 최하위다.

통산 11회 챔피언에 오른 명가 우리은행은 삼성생명의 '젊은 피'들을 상대한다.

국가대표 라인업 김단비, 박혜진, 박지현, 최이샘에 이명관이 가파르게 성장해 전력이 탄탄하다.

단기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준 위성우 감독의 전술, 전략도 관심을 모은다. 정규리그 맞대결에서는 우리은행이 5승1패로 압도했다.

도전자 입장인 삼성생명은 배혜운을 제외하면 이해란, 강유림, 신이슬, 키아나 스미스 등 주축 선수들이 젊은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